

RESEARCH ARTICLE

Early Buddhist perspectives on social memorialization

Lee, Pilwon

Professor, Liberal Arts and Convergence Education Institute,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사회적 추모에 대한 초기불교적 관점

이필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leepwon@gmail.com

Abstract

Social disasters are more than just accidents or technological disasters, they are defined as disasters stemming from a variety of causes that affect human life, property, and the stability of a country or society. These disasters can take many forms, including terrorism, crime, and violence, and have a profound impact on individuals and the public. How we respond after an event, especially how we treat victims, is crucial.

In cases such as the 1989 Hillsborough stadium disaster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2022 Itaewon tragedy in South Korea, we see a lack of adequate and sufficient response, and the nature of the problem becomes an ideological conflict. This is the result of a misperception of reality and intentional distortion of the problem, which in turn leads to social conflict and increased costs.

In Buddhism,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compassion and right view. Resolution is about effectively healing the aftermath of a disaster and changing our consciousness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When the social memorialization and healing of a disaster is done properly, our society can regain stability and the victims can return to their daily lives. In particular, we can effectively respond to social disasters through four immeasurable states of mind based on the Four Noble Truths.

Keywords: Itaewon tragedy, social memorialization, compassion, right view, Four Noble Truths, four immeasurable states of mind



OPEN ACCESS

Citation : Lee, Pilwon. Early Buddhist perspectives on social memorialization.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0, 83-94.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30012>

Received: December 01, 2023

Revised: December 08, 2023

Accepted: December 08, 2023

Copyright: © 2023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들어가는 말

인간 사회는 수많은 부조리들로 가득하다. 대표적으로 전쟁, 테러, 살인, 거짓, 위선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사회적 재난’은 질병이나 전쟁, 테러 등과는 또 다른 결을 지닌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은 우리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이 있다. 이들 사회적 재난은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재난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쟁이나 테러 등과는 결을 달리한다.

전쟁이나 테러 등은 그것을 일으킨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혹은 심리적 원인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그 주범들을 단죄할 수 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역사적 평가를 통해 우리는 권력을 지닌 혹은 힘을 지닌 자들의 부도덕함을 단죄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재난은 어떠한가. 이 재난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의도를 갖고 일으킨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전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인명피해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 고통은 때로는 깊은 사회적 상처로 남아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재난에 따르는 인명의 희생은 단순히 한 명의 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사회 구성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은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등의 관계망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적 재난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충격의 여파가 매우 크게 다가오게 된다.

사실 사회적 재난은 사회 전체가 그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면서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방정부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집단적 치유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나 집단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쉽지 않다. 종교가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분명 그 한계가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갖는 치유적 역할은 다른 단체나 조직보다는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불교에는 참여불교라는 개념이 있다. 참여불교는 사회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실천불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을 사회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불교(Kim 2014: 128)를 의미한다.

그러나 초기불교 텍스트에서 사회적 재난이나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붓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찾아볼 수는 없다. 이는 필자가 아는 한 그러하다. 그러나 초기불교 경전을 주석한 주석서에서는 벨루와나(Veluvana)지역에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에 대한 붓다의 대처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불교의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기경전에서 사회적 재난에 다른 사회적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불교의 대처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사성제와 사무량심을 통한 사회적 재난과 추모의 문제 접근 방식

고통의 문제는 크게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로 구분된다.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 대한 접근 방식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차원은 그 고통의 문제가 개인을 넘어 주변을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고통의 문제의 경우는 그 사회 구성원들 전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적 고통과 구별된다.

그러나 고통이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 어디에 속하든 그것을 해결하는 구조는 크게 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하에 필자는 사성제와 사무량심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접근해 보고자 한다.

2.1. 사성제의 입장에서

사성제는 고타마 붓다가 정각을 성취한 뒤, 이른바 초전법륜이란 에피소드에서 처음 등장하는 가르침이다. 사성제는 해탈도(vimutti-magga)¹⁾이다. 즉 궁극적인 깨달음인 열반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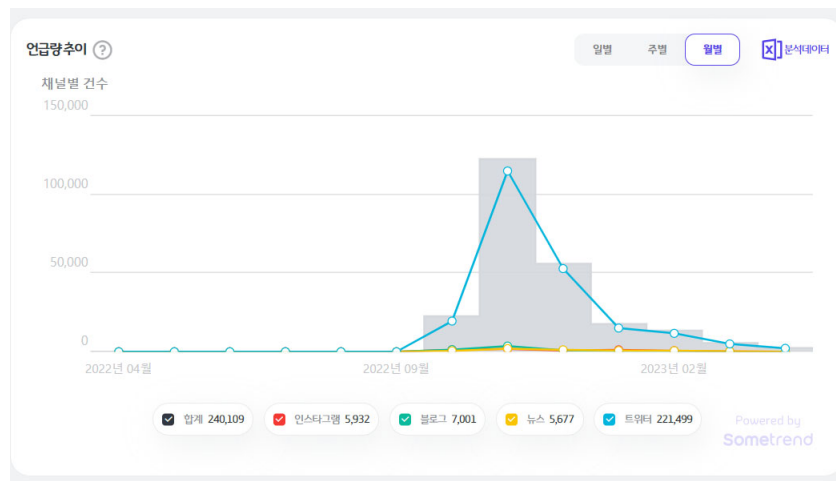
1) 이는 기원 후 1~2C 경 Upatissa가 지은 논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우빠뿔사의 저작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 활약했던 Sanghapala에 의해

<표 1>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Four Noble Truths

구성요소	의미 구조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고(dukkha)	현실인식	고통의 인식	재난이나 질병 등이 사회에 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판단
집(samudaya)	원인탐색	나의 욕망 이해	재난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규명
멸(nirodha)	문제해결	문제해결	문제해결
도(magga)	원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	욕망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을 마련하여 실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와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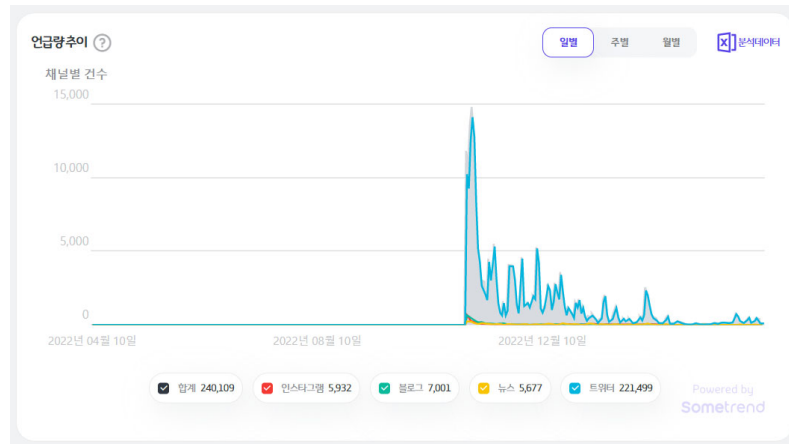
사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정견, sammādiṭṭhi]이다. 이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제대로 찾을 수 없게 된다. 일례로 우리가 얼마 전에 겪은 ‘세월호’ 문제나 ‘이태원 참사’ 문제가 있고,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 4.3, 부마항쟁, 그리고 광주민주화 항쟁 등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문제는 여전히 갑론을박되며 제대로 그 사태를 바라보는 것조차 난망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붓다가 금기시한 자기 견해, 자기 욕망을 투영하여(Sn. 772, 785) 현재 그 문제가 어떤 고통을 유발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바르게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견해에 대한 집착이 종교적 혹은 이념적 전쟁과 십자군 원정, 유혈 혁명, 홀로코스트 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피터하피, 2010: 440)

위의 두 예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고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희생이다. 사회적 추모라는 주제를 다루기에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가 보다 적절할 것 같다. 이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갖고 빅데이터 내용을 분석해 보자.²⁾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및 다양한 SNS의 언급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Picture 1] Monthly Mention Trends**

『解脫道論』으로 번역되어 전한다. 본문에서 ‘vimutti-magga’는 말 그대로 ‘해탈을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2) 빅데이터는 sometrend(<https://some.co.kr/>)를 사용했다. 검색일자는 2023년 4월 10일이다.



[Picture 2] Daily Mention Trends



[Picture 3] Associated word analysis

일별 언급량의 경우 2022년 11월 2일 14,642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리고 23년 4월 14일까지의 누적 언급량이 240,109회 였는데, 이 중 뉴스는 5,677회로 나왔다. 월별의 경우는 22년 11월에 120,690회 언급량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한 연관어는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자.

윤석열 29,603회 대통령 22,049회 이상민 11,418회, 세월호 14,051회, 마약 12,117회, 희생자 19,421회, 진상규명 10,422회, 정부 18,635회, 책임자 10,764회, 경찰청 8,860회, 국정조사 20,535회, 특검 7,037회 등이다.

이 외에도 이재명, 민주당, 국민의 힘, 국회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이한 것은 세월호에 대한 언급이 14,000회 이상 언급되고 있다는 점과 국정조사와 특검, 진상규명 등을 합하면 3만 8천회 정도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국정조사 2022년 11월 24일부터 55일간 진행되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6594.html>)

그럼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긍정과 부정 단어의 순위를 살펴보자. 이는 참사가 일어난 후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부정단어순위변화 (2023.01.01~2023.01.31) 01월

단어	공·부정	건수	순위등/하락
비판	부정	2,245	NEW
참사	부정	1,476	-
토하다	부정	1,420	NEW
범죄	부정	978	▲ 10
폭행	부정	922	NEW
사랑	긍정	848	NEW
모욕	부정	774	NEW
달다	중립	602	NEW
전통적	긍정	512	NEW
최선	긍정	483	NEW
악말	부정	482	▼ 4
성매매	부정	443	NEW
아름다	부정	364	NEW
안전	긍정	297	▼ 1
빨갱이	부정	267	NEW

공·부정단어순위변화 (2023.02.01~2023.02.28) 02월

단어	공·부정	건수	순위등/하락
참사	부정	1,553	▲ 1
토하다	부정	838	▲ 1
추모	중립	623	NEW
범죄	부정	434	-
폭행	부정	416	-
빨갱이	부정	413	▲ 9
모욕	부정	410	-
사랑	긍정	364	▼ 2
건강	부정	312	NEW
가슴 아프다	부정	309	NEW
아프다	부정	306	NEW
최선	긍정	280	▼ 2
안전	긍정	260	▲ 1
난동	부정	232	NEW
많은 관심	긍정	204	NEW

[Picture 4] Positive and negative word rankings for January and February 2023

[그림 4]를 보면 1월에 ‘빨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2월에 가면 순위가 6위로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22년 12월에는 이 단어가 순위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2월에 ‘추모’라는 단어가 새롭게 3위에 링크되었다는 점이다. 이후의 변화를 보자.

공·부정단어순위변화 (2023.02.01~2023.02.28) 02월

단어	공·부정	건수	순위등/하락
참사	부정	1,553	▲ 1
토하다	부정	838	▲ 1
추모	중립	623	NEW
범죄	부정	434	-
폭행	부정	416	-
빨갱이	부정	413	▲ 9
모욕	부정	410	-
사랑	긍정	364	▼ 2
건강	부정	312	NEW
가슴 아프다	부정	309	NEW
아프다	부정	306	NEW
최선	긍정	280	▼ 2
안전	긍정	260	▲ 1
난동	부정	232	NEW
많은 관심	긍정	204	NEW

공·부정단어순위변화 (2023.03.01~2023.03.31) 03월

단어	공·부정	건수	순위등/하락
잊어버리다	중립	844	NEW
참사	부정	750	▼ 1
무책임	부정	201	NEW
악말	부정	162	NEW
색깔론	부정	136	NEW
망언	부정	100	NEW
분노하다	부정	99	NEW
토하다	부정	78	▼ 6
호느끼다	부정	60	NEW
추모	중립	59	▼ 7
범죄	부정	54	▼ 7
책임지지않다	부정	52	NEW
논란	부정	51	NEW
독립적	중립	50	NEW
위법	부정	46	NEW

[Picture 5] Positive and negative word rankings for February and March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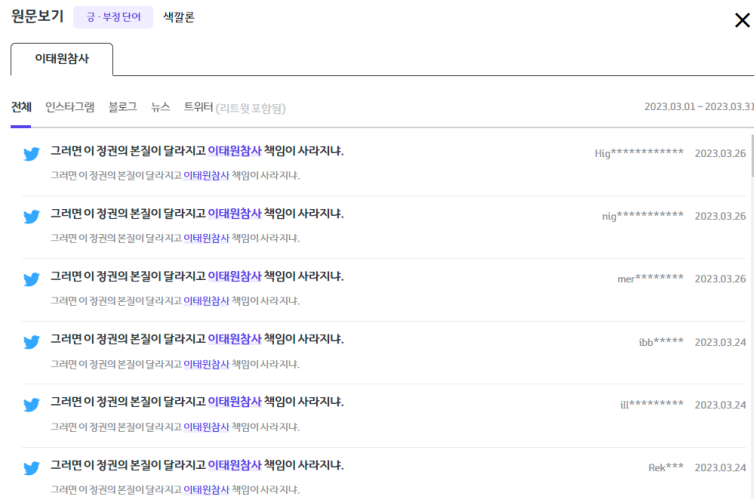
위의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빨갱이’, ‘색깔론’, ‘악말’, ‘망언’, ‘모욕’ 등과 같은 단어들이 꽤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이들 단어들은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



[Picture 6] Word Sources for ‘communist’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빨갱이’란 표현은 주로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23년 1월부터 등장하고 있다. 일반 블로그나 뉴스에서는 검색되지 않았다. 한편 ‘색깔론’은 3월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아래 [그림 7]에서 ‘색깔론’이 언급되는 것은 주로 트위터였는데, 위의 그림에서는 해당 단어가 바로 보이지는 않는다. 링크를 클릭하면 ‘색깔론’에 대한 언급이 확인된다. 이 단어가 검색되기 시작한 것은 “이태원 참사 이용한 ‘反정부 시위 선동’ 북한 지령문 총각”(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5967)이라고 한 당시 정부여당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의 발언과 관련된다.



[Picture 7] Word sources for ‘colorism’

이상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은 피상적인 분석이라는 한계를 분명 갖는다. 다만 본 논문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인용한 것은 ‘사회적 추모’라는 문제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성제의 구조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현실인식이다. 현실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 올바른 현실인식이 크게 왜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향후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그것을 바라보는 추모의 시선이나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할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한다.

2.2. 사회적 추모의 대전제 ‘정견’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불교 경전에서는 ‘사회적 추모’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적어도 필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고따마 붓다가 활동하던 시기는 전쟁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아마도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살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DN.에서 언급되고 있는 Mahāparinibbānasutta에서는 7불퇴법 가르침을 통해 아자타삿투왕이 왓지족을 병합하고자 한 시도를 막은 일화 정도가 유일하다. 붓다는 아자타삿투에게 무력이 아닌 덕치, 법(dharama)에 의한 통치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붓다는 당시 사회상의 한 측면이었던 ‘폭력’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경고를 여기 저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음을 경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Dhammapada* 129~133G는 모두가 폭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는 가르침이다.

또한 *Suttanipāta* 제4장 Attadaṇḍasutta(폭력을 휘두르는 자에 대한 경)은 말 그대로 폭력(daṇḍa)이 주는 두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폭력은 그 누구에게도 안전을 담보하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의 폭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폭력을 휘두르는 자로부터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싸움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두려워했는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Sn.935G)

그들이 끝까지 반목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혐오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심장에 박혀 있는

보기 어려운 화살을 보았습니다.(Sn.938G)

단다(daṇḍa)는 지팡이라는 뜻도 있지만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싸움을 하는 사람들(janam medhaga)이란 표현에 대한 배경은 싸끼야국과 쾰리야국의 경계인 로히니 강에 설치한 댐을 둘러싸고 일어난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을 나타낸 것이다(전재성 2018: 683 각주 935). 나라 사이의 분쟁인 만큼 이는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붓다는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이 가르침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붓다의 눈에 보인 것은 그들 심장에 박힌 화살(sallam hadayanissitam)이었다. 붓다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종종 화살이라는 은유를 사용한다(Sn.의 Kāmasutta 767G, sellasutta 등).

경전을 통해 우리는 원인은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비로써 바르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추락도 죄도 없으며, 단지 우리가 원래의 본성에 대한 망각, 마비, 기억 상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본성을 잊으면 자아와 타자 사이에 구별이 생깁니다. 아울러 부정적인 감정, 고통을 낳는 애증과 연관된 모든 경향들과 자기 중심주의가 나타납니다.(장-프랑수아 르벨 · 마티유 리카르 공저 1999: 213)

마티유의 위 언급에서 ‘자아와 타자의 구별’,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가 바로 고통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여러 가지) 지각을 지각하는 자(saññasaññī)도 없고, 잘못된 지각을 지각하는 자도 없고, 지각하지 않는 자도 없고, 소멸된 지각을 지닌 자도 없다. 이렇게 아는 자에게는 물질적 존재(rūpa)가 소멸한다. 왜냐하면 망상이라고 불리는 것의 나타남은 지각에 의하기 때문이다.(Sn. 874)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 생각이 끊임없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바로 ‘생각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견해(邪見)가 고통, 즉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일단 자리잡게 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느껴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자신도 모르게 내몰리게 된다(이필원 2018: 86). 결국 희생을 희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관념적 허상으로 이를 왜곡시키고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그 사건 자체를 음모론으로 몰고가게 된다.³⁾

여기에는 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바로 보고 싶어 하지 않으려는 욕망이 자리한다.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문제를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다. 즉 비난의 대상을 찾아 그에게 문제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는 비뚤어진 시각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토마스 비엔 2012: 187). 일단 정견이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현실을 왜곡하게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원인을 탐색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

‘고통을 고통으로 바로 보는 것’이 사성제 중 ‘고성제’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견을 통해서 만이 가능한 것이다. 고성제가 알려져야지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원인탐색의 과정인 ‘집성제’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세월호나 이태원참사의 경우 서로 중첩되는 원인도 있지만 사건의 특성상 참사를 일으킨 독특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일단 이 두 참사의 공통된 원인으로 언론들에서는 ‘안전 관리 부족’(https://www.yonhapnewstv.co.kr/news/ MYH20221031008100032)을 꼽는다. 그러나 사실 ‘안전 관리 부족’은 원인이 아니다. 안전 관리 부족을 일으킨 것을 찾아야 한다. 세월호의 경우는 ‘탐욕’이 안전관리부실의 직접적 원인이며, 이태원참사는 안전 관리 시스템의 부재 및 정확한 판단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이 두 참사의 원인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탐욕과 무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성제의 집성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비교해 볼 만하다. 집성제에서는 ‘갈애(渴愛, taṇhā)’를 독카(dukkha, 괴로움)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갈애이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줄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가 그것이다.(SN. V, p.421)

갈애는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우리는 끝없이 욕망의 충족을 위해 달려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애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문제와 결부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이익이나 관념, 그리고 잘못된 욕구를 분출함으로써 현상 자체를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을 견해(ditṭhi)라고 한다. 견해의 위험성을 *Suttanipāṭa*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견해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뛰어넘기 어려우니, 생각을 깊이 하더라도 독단을 고집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집착안에서 독단을 취하기도 하고 또한 버리기도 한다.(Sn. 785 ; 전제성 2004: 400)

견해에 대한 집착(ditṭhinivesā)은 자기 관념의 허상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사실을 외면하게 한다. 결국 사회가 갖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야기된 참사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념의 문제로 왜곡시키게 된다.⁴⁾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시작은 자기 견해로 참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란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그리고 평생 씻기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다. 희생을, 죽음을 머릿속으로 헤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와 관련해서 마조스님 문화에 ‘설 낭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낭자가 할머니가 되어 손녀를 잃었던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본다.

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피해 사례들을 수집·추적해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사참위 전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을 향한 명예훼손 사건들이 10건 중 9건꼴로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사참위가 분석한 명예훼손 사건 46건 중 41건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벌금형 29건, 실형 11건, 선고유예 1건이었다. 가해자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56.2%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92.8%로 대부분이었다. 명예훼손 발언의 확산 통로는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51447001#c2b.) ; ‘세월호 참사’ 얘기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다. “이미 끝난 일 아니냐” 혹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음모가 있다”. 답변은 다른데 표정들은 똑같이 구겨진다.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https://www.truthfoundation.or.kr/notice/hangugilbocaeggwa-sesang-seweolho-camsa -josaneun-eoddeohge-eummorongwa-hyeomoro/)

4) “세월호 침몰은 좌파 연극”, SNS에 글 올린 기자 조사,(경북일보 2014년 04월 22일자 기사,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955) ; 자식 잃은 세월호 유가족은 어떻게 ‘종북’이 되었나(KBS NEWS 2019.05.0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94889 ; ‘어게인 세월호·광우병’, 亡國 좌파의 夢想이었다[김창균 칼럼](조선일보 2023년 4월 23일,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12/15/7XDJTRIDYJFSRJYDUHKEXZNBVM/)

그녀가 할머니가 된 어느 날, 그녀의 어린 손녀가 죽었다. 그녀는 장례식에서 비통하게 통곡을 하였으면서도, 집에 돌아온 이후로도 조문객이 찾아와 애도를 표할 때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수근거렸다. 결국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녀에게 가서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께선 견성을 하셨으니 이미 생사가 없음을 아실 텐데 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왜 당신의 깨끗한 마음에 손녀딸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말했다.

“나의 눈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당신은 모를 겁니다. 내 눈물은 경전 전부보다도, 조사들의 말 전부보다도, 그 어떤 향화반식(香華飯食) 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내 손녀딸은 나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열반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소리쳤다.

“이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스트른 미첼 2011: 184)

설 할머니의 손녀가 죽었다. 할머니는 비록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나, 손녀의 슬픔에 슬피 울었던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할머니께서는 견성을 하셨으니 이미 생사가 없음을 아실 텐데 왜 그리 슬피 우십니까?”라고 말했다.

이 일화에서 ‘사실(fact)’은 ‘손녀가 죽었다’이다. 그리고 ‘견성을 하셨으니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다. 사람들은 해석한 것이다. ‘저 할머니는 깨달음을 얻은 분이니 생사가 없음을 알터인데, 어찌 슬피 울까?’라고. 이렇게 자기들 생각에 갇힌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내 눈물은 모든 경전보다도, 조사들의 말 전부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내 손녀딸은 이 통곡을 듣고 열반에 들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을 깨뜨려주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것, 그리고 슬픔을 넘어 치유하는 것이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다. 설 할머니는 바로 이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그 죽음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잘못된 견해로 신음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추모’는 커녕 서로 반목하며 계속해서 서로를 상처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회적 추모’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3. 사회적 추모의 구체적인 방법 : 사무량심

붓다의 가르침 중에는 ‘사무량심’이라는 것이 있다. ‘자(mettā), 비(karuṇā), 희(muditā), 사(upekkhā)’의 네 가지이다. 사무량심은 본래 ‘해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수행법[解脫道]’이다. 그러나 이 수행법 만큼 사회적 추모와 어울리는 덕목도 없다. 우선 이들 덕목이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애’는 모든 존재들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열망을, ‘자비’는 이롭지 않는 것과 고통으로부터 존재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열망을, ‘기쁨’은 타인의 기쁨에 대해 같이 기뻐하며 타인의 행복에 대해 같이 행복해 하는 것을, ‘평정’은 자신과 타인 성취, 인생의 대소사, 혹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동요되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의미한다.(안옥선, 2002: 243)

쉽게 말해 자애는 존재를 이롭게 하기 위한 실천, 연민은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애 수행이란 것이 단순히 다른 이에 대한 자애의 마음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나 증오, 적의와 같은 정서적 번뇌를 제거 혹은 억제함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필원 2010: 17)이며,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게 하는(Leslie S. Greenberg · Sandra C. Paivio, 2008: 33) 기능을 갖는다. 이것을 수행법의 측면에서 말하면 분노는 자애명상을 통해 치유되며, 적의는 연민수행, 불쾌는 기쁨수행으로 치유할 수 있다(예를 들어, MNI, pp. 424-426).

사무량심을 수행법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재난에 따른 추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사성제의 관점에서 보면 ‘도성제’에 해당한다. 보통 도성제의 내용은 팔정도가 제시되는데, 사회적 추모와 관련해서는 팔정도보다는 사무량심이 보다 적절한 실천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무량심의 4가지 덕목이 사회적 추모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연민(悲, karuṇā)이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어떤 시비나 관념에서 벗어나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평정(捨, upekkhā)도 요청된다. 평정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impartiality)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현상을 두루 관찰하여 실상을 보는 것(안옥선 2010:243)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보면 평정은 지혜와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그렇다고 보면, 사회적 추모를 위해서 불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연민’과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지혜는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며, ‘연민’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써, 이 둘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때, 비로써 우리는 모든 중생을 고통과 그 고통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올바른 동기와 목적(달라이 라마 외, 2019: 141)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우리가 사회적 추모의 관점에서 ‘자애’를 이해한다면, 어떤 관점이 중요할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는 다음 경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기 존자들에게 여럿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자애로운 신체적 행위를 일으키며,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자애로운 언어적 행위를 일으키며,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자애로운 정신적 행위를 일으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내가 나의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을 따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저희들의 몸은 다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몸은 다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MN.I, p.207 ; 전채성 2009: 399)

위 경문은 MN에 수록된 Cūlagosingasutta(고승가 법문의 작은 경)의 일부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애(mettā)의 실천이란 나의 관점을 버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성찰하고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연민(karuṇā)’ 역시 동일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내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고통이 아니라, 상대방이 겪고 있는 아픔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여 실천법을 강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연민의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사람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빠져나오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아날라요 2018)이기에 여기에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추모를 행함에 있어, 연민을 실천한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슬픔’에 함몰되지 않는 것이다. 아날라요 스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가득 찬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아날라요 2018)이 연민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한다.

한편 『청정도론』에서는 “재가에 의지한 슬픔이 연민의 거룩한 마음의 가까운 적이다. 잔인함은 연민의 먼 적이다.”(붓다고사, 2005: 179~180)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연민은 슬픔과 다른 것이며, 연민하는 자는 결코 잔인함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다. 슬픔은 상실감, 우울, 무력감, 분노, 두려움등이 혼재된 상태(Leslie S. Greenberg · Sandra C. Paivio, 2008: 234)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연민은 분명 슬픔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아날라요 스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민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불교는 우리에게 바른 견해(正見, 지혜)로 죽음을 바로보고 죽은 자와 상처받은 자에 대한 연민으로 보듬고 치유하는 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사회적 재난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그 의미가 정의되었다. 이진우(2013)는 ‘사회를 구성하는 직·간접적인 요소들로부터 기인한 1개 이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의 양상과 크기가 변하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향상성을 위협하여 파장이 큰 재해’라고 정의했다. 즉 명백한 사고나 기술적 재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련의 사건과 사고가 개인의 삶을 파탄내거나 대중의 공분을 일으켜 재난에 준하는 파급력을 지녔다면, 테러, 범죄, 폭력과 같이 다양한 형태라 하더라도 사회적 재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재난정신건강위원회, 2015; Norris, Friedman & Watson, 2002; Ursano, Fullerton, Lars & Raphael, 2007).⁵⁾

사건, 사고는 인간 세상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때로는 인재(人災)일 수 있고,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일 수도 있으며, COVID-19와 같이 강력한 전염병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사회적 재난 이후에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일이다.

영국에서는 1989년 셰필드의 힐즈버러 경기장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로 96명이 사망한 사건(<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0312125015#c2b>)이 있었으며, 그에 앞서 1987년 3월 벨기에 제브뤼헤 항구를 떠나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선 프리엔터프라이즈호가 항구를 떠나자마자 전복되어 193명이 생명을 잃은 사건(<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7621>)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건 이후 영국의 대처는 불충분했으며, 조사는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힐즈버러 경기장 압사 사고는 술취한 홀리건들의 탓이라고 하여 결국 단순 압사 사고로 묻히다가 10년이 지나서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참사로 결정되었다.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태원 참사 역시 같은 루틴을 밟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대처 방식이나 언론의 방향,

5) Hur & Rhee(2017 : 382)에서 인용함.

수사, 국정조사 등을 보면 서로 책임 떠넘기거나 이념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명확하게 사성제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고성제 : 正見]의 부재이다. 그렇다보니 그것의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집성제) 역시 이미 정해 놓은 틀에서 짜맞추려고 하는 과정, 즉 문제를 이념의 갈등 구조로 몰아가서 증오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도(DN.II, p.267)라고 해석된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할 뿐이다.

갈등을 부추겨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은 분명히 탐진치의 작용이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어리석음에 기인한다.(피터하비 2010: 441)

사회적 재난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각인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전반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갖든 추모를 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다. 불행한 일이지만 2016년 2월 제따와나 선원의 구성원들이 라오스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4분이 사망하고 2분이 크게 다친 사고(<https://www.youtube.com/watch?v=xnItxc49xhQ>)가 있었다. 이는 매우 불행한 사태인데 이후 선원의 주지스님이신 일묵스님으로부터 필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사고 이후 라오스의 불교계가 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여 오히려 그들이 슬픔에서 벗어나 감동을 받게 했다는 이야기였다. 이는 본문에서 아날랴오 스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민의 결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견을 갖추고, 연민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의 결과는 상처의 치유이며, 사회의 안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추모에서 ‘평정’이 요청되는 것은 죽음을 바로 인식하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평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필자는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추모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사무량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문초록

사회적 재난은 단순한 사고나 기술적 재해를 넘어, 인간의 생명과 재산, 국가나 사회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는 재해로 정의된다. 이러한 재난은 테러, 범죄,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과 대중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사건 발생 후의 대응 방식, 특히 희생자에 대한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1989년 영국 힐즈버러 경기장 사고와 2022년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사례를 통해, 적절하면서도 충분한 대응이 부족하며, 문제의 본질이 이념적 갈등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는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의도적인 문제 왜곡의 결과이며, 결국 사회적 갈등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불교에서는 연민(karuṇā, 悲)과 정견(正見)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란 재난이 일어난 후, 그 후유증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나아가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난에 대한 사회적 추모와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는 안정을 되찾고 피해자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사성제를 기반으로 한 사무량심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주요어

이태원 참사, 사회적 추모, 연민, 정견, 사성제, 사무량심

참고문헌

- AN *Aṅguttara Nikāya*, PTS
 Dhp *Dhammapada*, PTS
 DN *Dīgha Nikāya*, PTS
 MN *Majjhima Nikāya*, PTS

SN *Samyutta Nikāya*, PTS

Sn *Suttanipāta*, PTS

달라이라마 외(2019). 보살핌의 인문학(이창신 옮김), 서울:김영사
 붓다고사(2005). 청정도론 2권(대림스님 번역), 울산:초기불전연구원
 스트븐 미첼 편저(2011). 부처가 부처를 묻다(권지연, 김영재 공역), 서울:물병자리
 아날라요스님 지음(2018). 자비와 공(이성동, 윤희조 옮김), 서울 : 민족사
 안옥선(2002). 불교윤리의 현대적 이해, 서울 : 불교시대사
 이진우 (2013). 재난관리체계와 협력이 업무성숙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소방기관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필원(2010). ‘사무량심의 해탈도적 성격 고찰’, 불교연구 32집
 일목(2020). 사성제, 서울 : 불광출판사
 장-프랑수아 르벨, 마티유 리카르 공저 (1999). 승려와 철학자(이용철 옮김), 서울:창작시대
 전재성(2018). 스타니파타-붓다의 말씀,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토마스 비인(2012). 붓다 테라피 : 웰빙을 위한 행동심리학(송명희 옮김), 서울: 지와 사랑

Kim Sung-Soon(2014). “Buddhist Societies or NGOs? : Focusing on ‘Engaged and NCO-type Movements’ of Modern East-Asian Buddhist Societies”, 불교학리뷰 Vol.16

Her Yeun-Joo& Rhee Min-Kyu(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direct Trauma Scale of Social Disaster,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23, No. 3, 381-407.

인터넷 검색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031008100032>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0312125015#c2b>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51447001#c2b>.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9488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5967>
<https://some.co.kr/>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12/15/7XDJTRIDYJFSRJYDUHKEXZNBVM/>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6594.html>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95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7621>